명칭 바뀌고 조직개편 · 업무영역 확대

중소기업 기술지원 내실화에 역점 둘 터

5부1원29과 체제

110년의 역사를 미루어 보더라도 국립기술품질원이 공업시험연구분야와 생산현장에서 우리나라 공업발전을 위해 얼마나 괄목할 만한 기여를 해 왔는가는 가히 짐작할수 있을 것이다.

국립기술품질원은 1883년 전환국 소속 분석소로 설립하여 국립공업연구소, 국립공업기술원 등으로 변경되면서 올해 중소기업청의 신설에 따라 국립기술품질원으로 명칭을 개칭하고 우리나라 공업계에 선진기술을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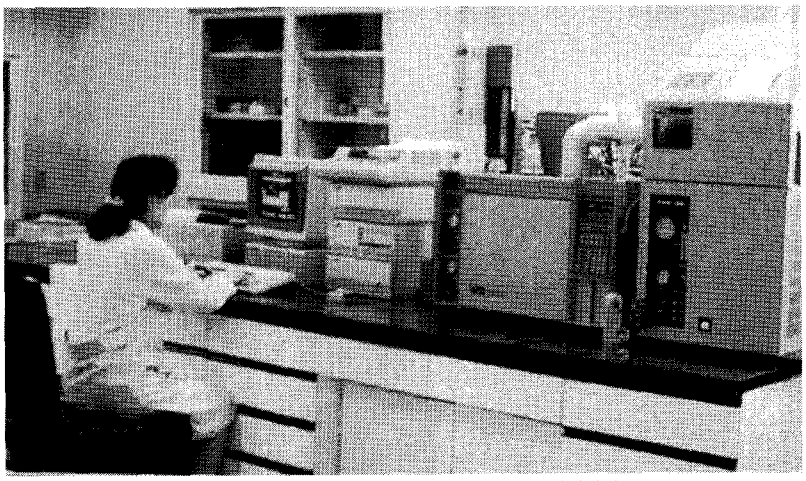
또한 그간 지속적인 시설보완과 인력보강은 물론 정부 각 부처, 기술정보기관, 금융기관, 대학교, 과학기술 관련기관 및 외국의 우수기관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올 2월 공업진흥청이 중소기업청으로 개청됨에 따라 조직의 개편과 업무영역도 확대되어 새로운 출발을 시도하고 있다.

5부1원29과 체제를 이루고 있는 기술원은 화학부(5과), 기계전기부(5과), 차세대산업부(4과), 표준계량부(5과), 품질안전부(4과), 요업기술원(4과)로 구성되어 있다.

화학부는 유기화학과, 무기화학과, 섬유과, 계료분석과, 고분자재료과로 시험분석 및 측정, 연구개발 및 검사, 기술지원, 개발제품의 기술평가 및 품질인증을 위한 평가, 시험기기의 운영관리 등의 업무를

▲ 국립기술품질원 야경



▲ 국립기술품질원에서 포장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연구부서는 화학부다.

수행하고 있다. 특히 고분자재료과에서는 기능성고분자, 복합재료, 플라스틱·고무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기술원 조직중 포장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를 주로 하고있는 화학부는 올해 환경보존을 위한 물질개발, 대체에너지 및 자원개발, 신소재기술 개발, 정밀분석 개발 등 산업기술 연구·개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기계전기부는 요소기계과, 산업기계과, 계측기기과, 금속과, 전기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공구 및 공작기계, 수송기계, 연소응용기계 등의 관련기술과 정밀계측기의 검·교정 및 형식승인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표준계량부는 국제표준계량과, 섬유화학표준과, 기계금속표준과, 전자정보표준과, 건자재물류표준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제표준계량과에서는 국가계량 및 측정표준체계의 확립과 국제표준기구와의 협력사업을, 나머지 각과에서는 국가산업표준제도 운영, KS표시허가제도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품질안전부는 품질관리과, 품질환경인증과, 생활용품안전과, 기계안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품질경영 내실화와 수출품의 품질향상 지원, 품질환경 인증, 시험인증제도의 정착, 생활용품 등 승강기의 안전관리 강화에 힘쓰고 있다. 특히 품질안전부는 품질경영 내실화와 수출품의 품질향상 지원을 위한 일환으로 시고품질시대 기반조성, 품질경영추진기법을 개발·보급하며 기업으로 하여금 품질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소비자활동 보호강화, 수출상품에 대한 품질실태 분석실시로 미흡한 부분을 개선토록하고, 있으며 일류화 지정업체의 품질향상을 지원함으로써 수출경쟁력 제고 등에 힘쓰고 있다.

이외에 차세대산업부는 전자정보과, 전자응용과, 자동기술과, 신뢰성기술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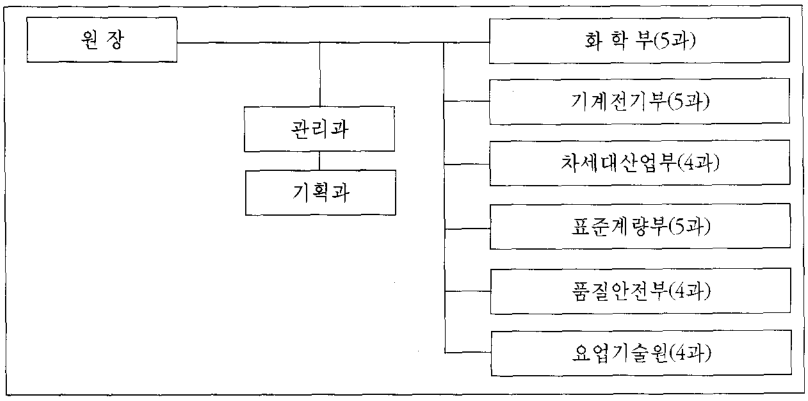
연구개발 기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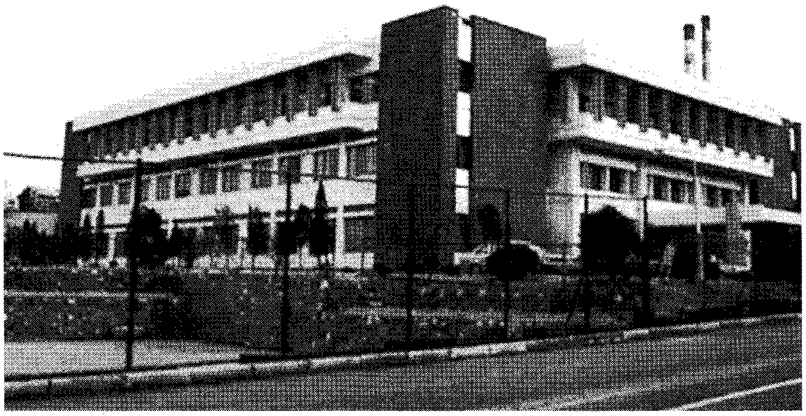
조직 및 업무의 변화에 따라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게 될 기술원은 연구개발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연구의 특성에 따라 전문기술센터를 설치, 운영할 것과 산학연 공동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대학 및 연구소의 우수인력 활용, 박사후 연수연구원제도 활용·확대 등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게 된다.

또한 중소기업은 기술, 전문인력 및 연구시설의 부족으로 자체 기술개발 능력이 미흡하므로 기술원의 연구능력과 학계·업계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기술지도를 강화할 목적으로 지금까지의 중소기업 기술지원 방향을 현장 밀착형태를 취하게 된다.

이의일환으로 첫째 홈닥터식 책임지원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기술원이 전문연구별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1~2개업체를 선별하여 업종별 선도

〔표 1〕조직도





▲ 국립기술품질원 산하의 요업기술원 전경

업체가 될때까지 시험, 분석, 공정개선 등의 기술을 110개업체에 종합지원하게 된다.

둘째 전문인력과 시설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기술원의 수탁연 개발사업을 지난해 30개과제이던 것에서 50개과제로 늘려 중소기업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를 강화하게 된다.

세째 실험실에서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를 추진하기 위해 기술원에 설치된 염색 가공, 도금, 고무배합, 열처리 등 6개 실험공장을 활용하여 지난해 6개과제에서 12개과제로 확대해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확대한다.

네째 중소기업의 특성상 기술개발에만 그치고 실용화가 부진한 것을 감안하여 품질인증제도를 확대한다. 즉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을 평가하여 우수기술로 인정되면 신기술인정마크(NT)를 부여하는 제도를 확대시행,우수인증제품에 대한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다섯째 지난 해부터 국내에서 새로 개발된 기계류 · 부품 · 소재의 품질 및 성능을 평가한후 우수한 제품에 EM마크를 부여하는 품질인증제도를 96년만도 200품목을 선정하게 된다.

이외에도 외국제품에 비해 기술력이 취약한 품목과 수입이 많은 품목을 자본재 전략품목으로 선정하고 연구개발에서부터 시제품제작 및 양산, 사후평가까지 개발사업 전과정을 관리 · 지원하며 중소기업에 대해 시험연구시설을 대폭 개방할 방침이다.

연구원은 올해 중소기업을 위한 사업외에도 다양한 업무계획을 책정해 놓고있다. 즉 산업기술 관련 연구개발, 시험 · 분석 · 평가 및 계측기술의 고도화, 산업표준의 선진화 , 산업의 정밀도 향상과 국제인증제도의 정착, 생활용품 및 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등이 중점사업으로 추진될 것이다.

'국립기술품질원' 이라는 표시판이 아직 어색하게 느껴질 만큼 국립공업기술원은 우리공업계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

올해 새로운 명칭변경과 내부에서의 승진으로 선임된 원장을 필두로 기술원은 공업기술의 연구 개발 및 검사, 개발제품의 기술 및 품질인증,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등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다.

국내 최초의 시험연구 기관, 국내 최고의 전문인력 보유기관, 최신의 설비보유 기관이라는 장점을 살려 품질원은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동반자로, 우리나라 공업발전을 일보 앞당기는 데 앞장 설 것이다. ko

이선하기자

〔표 2〕인력현황

구 분	계	행정직	기술 • 연구직	복수직	기능직
본 원	285	25	217	8	35
요업기술원	49	4	22	-	23
계	334	29	239	8	58

〔표 3〕예산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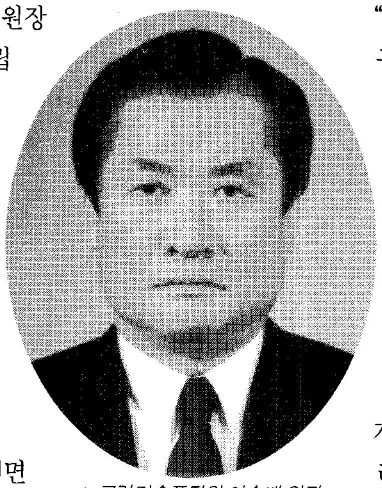
세항면	계	기술원 예산	공진청 이체
계	20,313	169,848	3,465
기관운영	11,026	10,896	130
화학시험연구	853	853	–
기계전기시험연구	859	859	–
차세대산업시험연구	902	902	–
산업표준	1,699	–	1,699
품질안전	1,636	–	1,636
기계류 품질인증	1,515	1,515	–
요업기술원	1,823	1,823	–

연구소탐방 문의는
월간 포장정보 편집실
전화: 02) 780-9782

인터뷰 ─국립기술품질원 원장 이승배

평사원서 최고 사령탑에 이른 첫 케이스

우수인력 확보가 기술향상의 초석


▲ 국립기술품질원 이승배 원장

올해 신임원장으로 취임한 이승배 원장은 지난 69년 국립공업기술원(당시 국립공업연구소) 연구원으로 시작하여 종합분석부장, 화학부장을 지내고 개원처음으로 내부에서 승진한 예라 그 의의가 더욱 크다.

서울대학교 섬유공학과 출신으로 그간 실질적인 연구에 주력해온 그는 우수인력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인력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공업진흥청이 중소기업청으로 바뀌면서 그 역할이 더욱 확대되는 시기에 원장에 취임하게 되어 더욱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앞으로 업무영역을 넓혀 본연의 연구를 충실히 함과 동시에 중소기업의 편의를 위한 기관으로서의 역할도 동시에 이행할 것입니다."라고 늦게나마 취임소감과 계획을 피력하는 이 원장은 덧붙여서 현재 전자분야가 취약한데 고급인력을 충원하여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전자 분야의 연구능력을 키울 계획을 밝혔다.

그는 연구원이 연구에만 몰두할수 있는 분위기 마련을 재삼 강조하며 앞으로의 운영계획 몇가지를 제시했다.

즉 시설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기술 애로사항 해결에 주력할것, 시험분석업무의 내실화를 기할 것, 지방화시대에 따른 지방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늘릴것, 자본재 품질인증사업과 기존 NT마크제도를 차질없이 수행하는 것이다.

"우리 연구원이 93년부터 시작한 수탁연구가 현재 1백22건에 달하고 있고 이중 80%이상이 개발 완료되어, 중소기업체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우리원은 특허만도 13건을 획득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라는 이 원장은 "수탁활동이 중소기업은 물론 대기업으로부터도 큰 호응을 얻고 있으므로 앞으로 현장밀착형의 기술개발에 주력, 중소기업의 현장애로기술을 해결하는데 촛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밝히며 말을 맺었다.

이승배 원장은 현재 박사 87명을 포함하여 2백84명이 일하고 있는 품질원 인력을 올해만도 최소한 박사급 연구원 20명을 충원할 계획이며 연구사 연구원으로 단순화돼 있는 계층제를 과학기술처와 협의하여 일본과 같이 5단계 정도로 늘려 연구원들의 승진기회를 확대할 계획을 밝혀 연구원의 활기를 불어 넣고있다.

그간의 연구원 생활을 바탕으로 하여 연구원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한 운영미를 발휘하게 될 이원장은 오래 만 55세며 우량공무원표창, 근정포장, 황조근정훈장을 수상한 경력이 그간의 그의 모범적인 생활을 증명해 주고있다. [ko]

이선하 기자